

‘F1 특별법’ 어디까지 왔나

# 문광위 의원들 원론적 찬성 전남도는 법안 일부 수정키로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도시(J프로젝트) 선도사업인 F1(포틀러 원) 국제자동차대회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다루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의견이 제각각이어서 특단의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또 문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25명 중 절대 다수인 18명이 F1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특별법 자체는 수정 보완해야 한다는 반응이어서 법 통과를 위한 대비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광주일보가 국회 문광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F1 특별법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광주·전남지역 출신인 유선호, 지병문 의원과 열린우리당 윤원호 의원은 F1 특별법의 원안 통과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문광위에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한다면 이를 일정 부분 반영, 반드시 6월 임시국회에서 F1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과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은 F1 특별법이 민간 사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있는 데다 수익성도 낮다며 법안 폐기를 주장했다. 전영욱, 강해숙, 이광재 의원 등은 F1 특별법안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또한,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F1 특별법이 같은 당 소속인 임태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데다 대선을 앞두고 호남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법안 폐기 등 강경 입장보다는 수정 및 보완이라는 신중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대선을 앞두고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열린우리당 등 범여권 위원들도 F1 특별법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이 부담스러운 듯 적극적인 모습을 나타내지 않아 6월 임시국회 통과까지 이들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개발과 적극적인 대응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목표로 총력 대응에 나

섰다. 전남도는 F1대회가 J프로젝트의 선도사업으로 전체 사업 성패의 가능성이 될 수 있는만큼 특별법 제정을 관철시키기 위해 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고 문광위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설득작업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그동안 특별법안과 관련해 제기됐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대표 발의 의원과 문광위원, 문화관광부 법률전문가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법안심사 소위 심의를 대비해 다양한 대안도 준비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이상면 전남도 정부부처사와 관계 공무원 등은 7~8일 국회를 방문, 문광위원 등을 만나 F1대회가 J프로젝트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강조하고 반드시 6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잘 나가는’ 변호사 특별관리한다

개정 변호사법 시행령 입법 예고...7월부터 법조윤리협의회

7월부터 평균보다 월등히 많은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은 법조윤리협의회의 특별관리를 받는다.

법무부는 특정변호사 특별관리, 수입내역 제출 의무화 등 법조윤리 강화 방안을 담은 변호사법 시행령을 8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대통령령이 정한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를 ‘특정 변호사’로 정해 이들의 이름과 사건 목록을 지방변호사회가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협회장이 각각 3명씩 지명 또는 위촉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기구로 매년 공직 퇴임변호사, 특정변호사의 수입자료 등을 심사해 수사의뢰 또는 징계신청을 할 수 있다.

시행령에서는 ‘특정변호사’를 ▲형사사건 ▲형사 이외의 분안사건 ▲형사 이외의 신청사건 등 세 분야 수입 건수를 기준으로

선정하도록 했다.

형사사건은 6개월에 30건 이상, 형사 이외의 신청사건은 6개월에 60건 이상, 형사 이외의 신청사건은 6개월에 120건 이상 수입한 변호사 가운데 소속 지방변호사회 각 부문별 평균 수입건수 보다 2.5배 이상을 수입한 변호사는 ‘특정 변호사’로 선정된다.

형사사건을 6개월에 30건 이상을 맡았더라도 소속 지방변호사회 평균 수입건수의 2.5배를 넘지 않으면 법조윤리협의회 특별관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시행령은 또 검찰·법원 출신 변호사가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입한 사건의 수입자료 및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내도록 한 규정과 관련해 제출 자료에는 공직 퇴임일, 퇴직시의 소속 기관 및 직위, 위임인, 상대방, 수임 사건의 관할기관, 진행 상황 및 처리결과 등을 적도록 구체화했다.

/연합뉴스

## 현장과 시각

### 이팝나무 귀향의 의미



송기동 사회2부 차장

일본 시마네(島根)현 마쓰에(松江)시 명소인 마쓰에 성(城) 주변에는 일본에서 보기 드문 70여 년생 이팝나무 29그루가 자라고 있다. 매년 5월이면 하얗게 피었다가 눈처럼 날리는 이 ‘신기한’ 꽃을 보기 위해 일본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인구 20만명의 이 작은 도시로 몰려온다.

이 나무들은 일제 강점기 때 전남도청에서 육림(育林)업무를 담당했던 마쓰에시 출신의 스기사카(杉坂 治)라는 일본인이 1940년 귀국하면서 가지고 간 10여 그루중 일부다.

일본에서는 대마도 일부에서만 자생하고 있는 까닭에 일본인들은 이 생소한 이팝나무를 ‘난자본자’(なんじゃもんじゃ= ‘이것이 무엇인가’) 또는 ‘히도즈바다끼’라고 부르고 있다.

9년 전 이팝나무를 사랑하는 마쓰에시 시민들이 모여 애호회를 결성했다. 애호회원들은 이팝나무의 씨를 받아 조금씩 수를 늘려가며 개인들에게 묘목을 나눠주기도 하고, 도시 가로수로도 조성해 가고 있다. 그런 한편 이들은 마쓰에섬 이팝나무가 ‘어떻게 건너왔나’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한국어 디서 왔는지’ 근원을 궁금해 했다. ‘뿌리’ 찾기에 나선 이들은 최근 이 나무가 함평에서 건너 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애호회원들 사이에 맞춰 이팝나무의 ‘귀향’을 추진, 마쓰에섬 이팝나무 씨를 받아 키운 3~4년생 이팝나무 10그루를 지난 4일 함평 영화학교 운동장 한편에 심었다. 꼭 67년만의 귀향이다.

이번에 함평을 방문한 애호회원 10명. 이중 5명은 ‘국제 이해(理解)교육 연구회’라는 모임을 꾸려 한·일 교류를 연구하는 현지 교사들이다. 이들은 첫 연구 주제로 ‘이름박문(伊藤博文)과 안중근 의사’를 공부하고, 권정생의 동화 ‘강아지 똥’을 읽는 등 한국을 알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우치무라 유타카(内村豊) 소학교 교장은 “학생들에게 이팝나무의 내력에 대해 얘기해 주며 한·일 교류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른 일본 여교사는 또 “지구가 하나인 것처럼, (이팝나무를 보고 느끼는) 기분은 똑같다”며 “꽃을 사랑하는 것은 ‘평화’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평화헌법 개정을 시도하며 군사대국으로 치닫고 있는 일본의 우경화 분위기 속에서 이팝나무의 상징적인 ‘귀향’은 의미심장하다. 일제 강점기에 반출했던 문화재의 반환이상으로 값진 ‘귀향’일수도 있다. 하지만 역사교과서 왜곡, 위안부 문제와 동해·독도 문제 등 풀어야 할 한·일간 현안은 산적해 있다. ‘가깝고도 먼 이웃’인 한·일관계를 영근 실타래 풀듯 한울 한울 민간 교류로 해결해 나갈 수는 없을까?

작지만 의미있는 이번 ‘함평 이팝 나무’ 귀향을 계기로 한·일 친선교류가 거목(巨木)의 뿌리처럼 굳건히 뻗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song@kwangju.co.kr



한-EU FTA 협상 개시 7일 오후 서울 잠정중신라호텔에서 열린 한-EU FTA 1차 협상에서 김한수 통상교섭본부 FTA 추진단장과 이그나시아 가르시아 베르세로 EU 집행위 통상총국 동아시아 담당국장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 “보복폭행 안했다면 왜 도망가나...”

### 경찰, 김승연 회장 사건 강경 “조만간 영창 청구”

### 김 회장 측 ‘추적 60분’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이 핵심 관련자 일부가 도피중인 사실과 관련, 경찰 수뇌부가 초강경 대처 방침을 밝혔다.

이택순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는 7일 열린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아주 철저하게, 일관된 의지로 이번 사건을 수사토록 하겠다”며 이런 방침을 천명했다.

이 청장은 이날 “서울경찰청과 남대문경찰서가 수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성원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뒤 간담회에 배석한 고위 간부들에게 수

사 방향에 대한 언급을 맡겼다.

한화측 관련자 일부가 잠적한 데 대해 강경화 경찰청 차장은 “뒤통스런 왜 도망가나. 찾아내기 위해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 결과 이틀이나 다른 사람들이 피의자 도피, 증인 은닉, 폭행 지시, 피해자 회유 등에 핵심적 역할을 한 사실이 나오면 당연히 철저히 추적해 사법처리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 비서실장인 김모씨, 한화 협력업체 사장 김모씨, 김 회장 차남 친구 A씨

등 보복폭행 사건 핵심 관련자 또는 목격자 3명은 현재 외부와 연락을 끊은 상태다.

강 차장은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관련자들이 잠적한 것과 관계없이 이뤄질 것이라며 “보강수사가 조만간 마무리되는 대로 영장 신청 조치가 있을 것이다”고 못박았다.

한편 김회장은 7일 KBS 2TV 시사프로그램 ‘추적 60분’이 김 회장의 보복폭행 의혹 사건을 다룰 방송을 준비하자, 이 프로그램의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추적 60분’은 9일 ‘보주기 수사인가, 조직적 은폐인가’편을 통해 경찰 수사 과정의 문제점 등 이번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조명할 예정이었다.

/연합뉴스

### 탄현 주상복합아파트 로비의혹 국회의원 보좌관 구속

일산 탄현 주상복합아파트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조정철 부장 검사)는 7일 시행사로부터 “군인공제회 대출 관련 부분을 문제삼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현지 국회의원의 보좌관 황모(39)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1월 교고 동창 이모(39·건설시행사 대표,구속)씨와 함께 시행사인 K사 대표 정모(47.구속)씨로부터 “군인공제회 대출 관련 부분을 더이상 문제 삼지 말아 달라”는 청

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황씨는 이씨가 탄현 주상복합사업에 대출 및 자금사용 과정에서 불법적인 면이 있다는 소문을 알려주자 K사로 부터 돈을 챙길 목적으로 2005년 말경 국방부를 통해 군인공제회에 K사의 대출관련 경위 등 자료를 요청했으며, 이에 불안을 느낀 K사측으로부터 이씨와 함께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황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연합뉴스

2012 여수세계박람회 성공적인 유치를 광주·전남도민이 다함께 기원합니다.

# 52 호남예술제

1956-2007 제52회 호남예술제

## 전통의 종합예술제전 · 전국대회

국회의장상·문화관광부장관상 시상!! / 시상범위 확대!!

**● 미술, 작문, 논술부문 신청**

- 예선 공모기간 : 5월 1일(화)~19일(토)
- 현장 예선 실기대회 신청(미술,작문부문) : 5월 9일(수)까지
- 현장 예선 실기대회(예정) : 5월 11일(금), 금호패밀리랜드
- \* 논술부문은 현장 예선 실기대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 접수방법 : 인터넷·한글(광주일보), <http://www.kwangju.co.kr> 우편·방문 접수가능

**미술·작문·논술대회**

- ▶ 예선/결선대회로 실시
- ▶ 미술·작문부문 입선제 도입
- ▶ 논술부문 초등부 1·2학년 제외

**「새싹그리기 축제」공모**

- ▶ 공모기간 : 2007년 6월 1일(금)~6월 19일(화)
- ▶ 우수상, 금상, 은상, 동상 외 입선제 도입

**장 학 금**

- \* 국회의장상·문화관광부장관상 : 각100만원
- \* 합창·합주제 대상 : 각1팀 50만원
- \* 개인·단체 최고상 : 초등 20만원·중등 30만원·고등 50만원

**■ 대회기간**

- 2007년 4월 23일(월)~ 6월 30일(토)
- 장소 :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광주시민회관, 광주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금호패밀리랜드

**■ 행사종목**

- 음악부문 : 성악,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기악, 관악, 현악
- 무용부문 : 현대무용, 발레, 한국전통무용, 한국창작무용
  - ※ 한국전통무용 초등부 저학년(1·2학년)독무 제외
- 국악부문 : 기악, 성악, 가야금(병창·산조), 타악
- 작문부문 : 시(동시), 산문
- 미술부문 : 인물화 정물화 풍경화 한국화 일러스트레이션 등
- 논술부문 : 총괄논술·초등부 저학년(1·2학년) 제외
- 합창제, 합주제

**■ 시 상**

- 우수학교시상 : 종합최고상, 종합우수상
- 단 체 : 최고상, 금상, 은상, 동상 / 합창·합주제 : 대상,금상,은상,동상
- 개 인 : 국회의장상, 문화관광부 장관상, 최고상, 금상, 은상, 동상
- 우수지도교시상

**■ 참고사항**

- 참가신청 : 광주일보사 호남예술제 접수처(062-220-0541, 222-8111)
- 경연일정 : 세부일정 및 장소는 홈페이지 참조
- 관련자료 : 인터넷 한글주소(광주일보), <http://www.kwangju.co.kr>

**주 최** | **광주일보사**

**협 찬** | **삼성생명** **한국관광공사**  
광주광역시

**후 원** | 문화관광부·광주광역시·전라남도·광주광역시교육청·전라남도교육청·전남대학교·광주교육대학교·조선대학교·호남대학교·광주대학교·동신대학교·호남신학대학교·초당대학교·광주여자대학교·남부대학교·예총광주시연합회·예총전남도연합회

**특별후원** | **대씨 문화재단**

주최 | **광주일보사**

협찬 | **삼성생명** **한국관광공사**  
광주광역시

후원 | 문화관광부·광주광역시·전라남도·광주광역시교육청·전라남도교육청·전남대학교·광주교육대학교·조선대학교·호남대학교·광주대학교·동신대학교·호남신학대학교·초당대학교·광주여자대학교·남부대학교·예총광주시연합회·예총전남도연합회

특별후원 | **대씨 문화재단**